

불자 세상보기



유자호 시인, 언론인

그것은 시(詩)였다. 살아 움직이는 장엄한 시였다.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응시하는 깊은 눈. 그들을 부여잡는 손. 자신의 가슴에 대는 또 하나의 손. 그 아픔을 함께 한다는 절절한 표정.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저 깊숙한 영혼의 심연에서 울려나오는 지극한 소리였다.

이 경우, 그가 로마 가톨릭의 수장이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겪는 아픔을 그렇게 절절하게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였던가.

고통 많고 갈등 많은 이 땅의 주민들은 그가 머물렀던 당시 동안 평화로웠다. 행복했다. 마치 크리스마스 하루 동안 포성을 멈추었던 제1차 세계대전의 병사들처럼...

우리의 평화는, 행복은 이역만리에서 일흔 여덟 살의 노구를 이끌고 그가 와야만 해결될 일이었던가? 과연 우리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가? 이것이 그가 떠난 후 그대로 다시 터져나오는 문제들을 보며 허탈해 하고, 부끄러워하는 이유다.

순교자의 나라 한국. 가톨릭 포교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참혹했던 조선에서의 순교. 그것은 조상 숭배를 지상의 가치로 여겨오던 조선인에게 제사를 부정하고 조상의 위패를 불사르거나 땅에 파묻게 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파리 외방 선교회는 2세기가 지나서야 그들이 조선의 실정에 너무 어두워 천 명에 이르는 순교자를 나오게 됐음을 시인했다. 그 순교자의 땅에 로마 가톨릭의 최고 수장이 찾아와 시복하고 축성했던 것이다. 2백년의 시간을 기다려 기어코 살아나는 시간의 명예. 이것도 또 하나의 거룩한 시였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 꿈틀거리는 시의 시공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부다는 살법을 하면 계승으로 끝을 맺었다. 그것은 부다의 시였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되었다고 아함경은 전하고 있다. 예수는 앞은뱀이를 보고 '치유되었으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한다. 그러자 실제로 그 환자는 일어서 갔다고 신약성경은 전하고 있다.

바로 이런 것이 위대한 정신의 힘이다. 위대한 정신이 내뿜는 말의 힘이다. 표정과 몸짓이 어우러져 표현하는 감동의 힘인 것이다. 교황이 주는 감동도 이런 반열에서 이해될 수가 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을 다녀간 후 한국의 가톨릭 세가 폭증했다. 이번 프란치스코의 경우도 그와 유사한 예를 보일 것이다. 교황이 보인 낮은 곳으로 임하는 자세, 한없는 겸양, 그리고 고통받는 자와 아픔을 함께 하는 진실함이 보는 이들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종교가 지향하는 방향은 같다. 스님들이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고, 입전수수(入塵垂手)를 수행의 마지막 단계로 여기는 것도 성 프란치스코의 청빈의 정신과 다르지 않다. 문제는 과연 그런 정신이 불교계에 어떻게 살아 있는가하는 점이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찰을 찾아왔을 때, 과연 그들과 아픔을 함께 했는가? 높은 스님들이 중생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팔없이 자기를 낮추었는가? 이런 점을 프란치스코는 일깨워주고 갔다고 하겠다. 그것이 프란치스코가 준 선물이었다.

나는 교황(敎皇)이라는 명칭에 반감을 느낀다. 교황은 황제가 아니다. 이태리

어의 Papa, 영어의 Pope, 불어의 Pape 어디에도 황제의 뜻을 갖는 곳은 없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가톨릭에서는 교황 대신 교종(敎宗)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 타당한 선택이라고 본다.

교황의 방문은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했다. 교황이 평화와 화해를 그토록 강조했지만, 교황이 떠나자마자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유족들이 거부해 민생 법안들도 함께 불모로 묶여버렸다.

북한은 교황이 방문하는 동안에도 미사일을 쏘대었다.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사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적화를 꿈꾸고 있는 북한을 동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용서해야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의 266대 후계자인 교황이지만 가족에게 닥쳐온 불행을 막지는 못했다. 지난 19일 아르헨티나에서 조카 가족 3명이 교통사고로 숨진 것이다. 인간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 개인 생로병사의 단편을 보여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어 보았는가

社說

'의승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돼야

서산, 영규, 사명 대사는 한국불교의 선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호국불교 정신을 길이 빛낸 의승들로 유명하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업적을 조명한 영화 '명량'이 8월 21일 현재 관객수 1천5백만명을 넘자 불교계 일각에서는 서산대사 업적을 조명한 영화도 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정도다. 이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은 불교계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 국민적이다. 이에 조계종은 2년전부터 이들의 업적을 기리는 취지에서 '호국 의승의 날'을 정해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다. 그동안은 준비 단계에 그쳤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부칠 것이다.

조계종은 8월 27일 '호국 의승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운동에 들어갔다. 발족식 행사 후에는 참석 내외빈의 서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호국 의승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전개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의 위기 때마다 불교는 의승군으로 활동하는 등 큰 기여를 했다. 서산대사는 73세의 노구를 이끌고 평양성 전투에 참여해 왜적을 퇴각시켰고, 처영대사는 권율과 함께 해주산성 전투에서 승리했다. 사명대사는 노원평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한성 수복에 큰 역할을 했으며, 800여 명의 전라좌수영 의승은 수군이 승리를 거두는 데 공헌했다.

입진왜란 이후 조정은 스님들에게 나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등 산성의 축성과 수비를 승군에게 맡겼다. 일제강점기에도 스님들은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등에 참여했고, 국내 독립운동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업적은 훨씬 많다. 충분히 국가 기념일로 제정될 명분이 있다. 정부도 이 취지를 깊이 살펴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그래야만 한국불교의 호국애민 정신이 퇴색되지 않는다.

불교계 선거, 잡음 끝날 날은 언제

올해 조계종에서는 주요 교구본사 선거가 여러 차례 있었고, 현재는 불국사 한 곳이 남아 있다. 하지만 주지 선거 과정이나 이후를 보면 그 모습이 깔끔하지 못하고 온갖 잡음이 들린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정 진제 스님의 주석처인 팔공총림 동화사는 주지 교체 후 두고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前 주지 성문 스님은 진제 스님이 효광 스님을 차기 주지로 지목한 임회에서 일어난 과한 사건은 중정 예경실이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복했고, 이는 양 진영간의 마찰로 이어졌다. 결국 원로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던 덕문 스님이 현 주지로 임명되면서 내용은 일단락됐다.

최근 있던 용주사 주지 선거도 과정에서 잡음이 상당했다. 용주사 운영위원회는 성관 스님을, 월암 문도회는 성월 스님을 추천했다. 전장 문도회의 최고 어른인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유사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고, 후보 스님의 승계에 대한 진정

도 이뤄졌다. 8월 20일 열린 산중총회에서 성월 스님이 선출됐다. 하지만 선거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마곡사는 지난 주지 선거에서 현 주지 원경 스님과 함께 출마했던 태진 스님 모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해 행사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재판 회부에 앞서 마곡사 산중총회에서의 돈이 오고간 정황들을 광범위하게 파악했다고 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 '중버슬은 닭벼슬보다 못하다'는 불가의 이야기는 성립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주지 선거는 정말 좋은 정책과 교구 발전 방안을 가진 스님들이 경합을 벌여 더 좋은 스님을 선출해야 하는 모습으로 가야 한다.

그렇기보다 현재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선거는 상대를 이기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세간의 선거판과 흡사한 현 모습은 승가적 모습이 아닐 것이다. 언제쯤 주지 선거의 잡음이 없어질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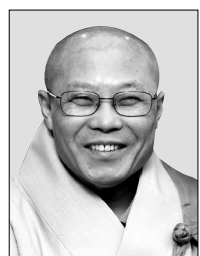
발언대

교황 방한과 불교계

프란치스코 가톨릭 교황이 지난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한했다. 교황은 가톨릭 성지와 광화문 시복식 등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세월호 유가족, 위안부 할머니, 밀양 송전탑 주민, 강정 마을 주민 등 우리 사회의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만났다. 청빈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감화를 받았다. 교황이 우리 사회에 던진 것에 대한 불자들과 SNS의 의견을 들었다.

<편집자 주>

수행자로 살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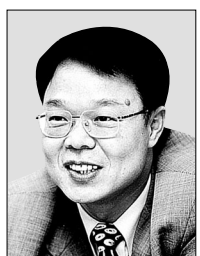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숙제를 던지고 있다. 힘없는 약자와 소수 계층에게 거리낌없이 다가갈 수 있는 교황의 모습에서 우리 시대의 지도자상을 볼 수 있었다.

이번 방한에서도 그는 기꺼이 낮은 곳으로 향했고, 낮은 곳의 사람들을 만나 위로했다. 이에 사람들은 많은 감동을 받았다. 거꾸로 말해 이런 교황의 모습에 찬사를 보내는 것은 우리 사회에는 이 같은 행보를 하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교황은 사랑과 청빈을 덕목으로 하는 종교지도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교황이 방한에 보여준 '진정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진정 고통받는 이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위로하려 했던 모습은 정치적 수사에 집중하는 우리의 지도자들과 사뭇 달랐다.

교황 방한을 통해 불교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수행자의 삶을 철저히 살고 있는지, 어려운 사람을 먼저 보듬고 있는지, 불의와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비판하는지, 우리에게 철저히 해야 한다.

권위를 버리고 사회로 나서라



프란치스코 가톨릭 교황이 지난 8월 18일 4박 5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떠났다. 그의 방한에 여파는 예상했던 것보다 크다.

무엇보다 교황의 낮은 곳에 임하는 리더십은 한국사회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불교를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은 대부분 권의주의적 모습을 보여왔다. 자신의 권위와 권력에 안주하려했고, 사회적 책임에는 등한시 했다. 하지만 교황은 권위를 부렸고, 사회적 책임을 통감했다.

이 같은 모습은 당장 가시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가치 전환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했다.

이제 우리 사회에도 교황의 낮은 리더십에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한국불교는 사찰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정말 음지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또한 사회 정의를 해치는 권력에게는 따끔한 일침을 던져야 한다.

사랑, 마음, 사람 교황의 메시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사랑, 한국, 마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 보면 교황이 이번 방한에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ekaquarius_star

동생에게 '왜 요즘 한국영화들이 그렇게 인기가 좋냐고 물었다. "명량은 교황 방한에서 보듯 '리더의 부재', 해무는 세월호 사태에서 보듯 '인간성의 부재', 해적은 몇 달째 침몰한 '낙(樂)의 부재'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위터@csj8454

'세월호 추모 행등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치 않았느냐' 질문에, 교황 "세월호 유족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 AP통신이 꼽은 교황 방한 하이라이트.

트위터@5zaro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머물렀던 4박 5일의 짧은 기간은 우리 사회의 위정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얼마나 방기하고 있는지 철저히 일깨워주는 시간이었다. 고통을 외면하는 사회로 남을 것인가.

트위터@songsun21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홈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선문열승』에서 가려 뽑은 화두 53선

화두공부의 마당

기존의 화두공부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렇다면 화두공부의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새로운 접근으로 화두의 본질과 공부를 지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한 책!

이수경 지음/신국판/330쪽/값 15,000원

극락왕생을 위한 임종 안내서

임종,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인생에서 피할 수 없이 맞이해야 하는 죽음,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임종을 맞이한 가족과 지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임종시 실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매뉴얼을 담은 책!

염불을 통해 극락정토에 왕생한 영험담 수록

인광, 홍일 저/박병규 외 옮김/신국판/248쪽/값 11,000원

광대무변한 화엄 세계의 핵심을 210자로 압축한 계승!

의상대사의 '법성계'를 선수행의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풀이하였다.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노래!

강해

의상대사 지음/김상백 풀이/신국판/206쪽/값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